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연예인 SNS논란, 더이상 사적공간 아니다

파급력 커 양날의 칼로...글 올릴때 한번 더 고민해야

배우 이병헌은 지난 20일 방송인 강병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병헌 측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규는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병헌을 '이XX'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단어로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티아라

사실 연예인이 SNS에 남긴 글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멤버 화영의 퇴출을 두고 '왕따 논란'을 빚으며 큰 파장을 낳은 '티아라 사태'도 논란의 중심에는 트위터가 있었다. '의지의 차이'^(효린), '연기 천재 박수를 드려요'^(지연) 등 멤버들의 트윗이 논란을 진화시키는 커브, 오히려 오해와 화만 키웠던 것.

능을 맡게 된 점을 꼽았다. 때로는 언론을 능가하는 파급력과 파괴력을 지니게 됐다.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연예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SNS에 이야기를 풀어내려 한 배우 장근석 등 연예인들의 트윗은 그야말로 바람같이 날아간다. 사적 공간인 SNS에 남긴 연예인의 발언이 사회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들의 SNS가 있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소속사의 고민도 깊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SNS 만큼 효과적인 홍보 수단도 없기 때문. 소속사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 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는 매력적이다. '강남스타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중인 가수 싸이가 대표적인 경우. 케이티 페리, 티베인 등 해외 유명 가수들이 트윗을 통해 싸이를 언급하면서 싸이의 추가도 담당이 치솟았다.

이 밖에도 최근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심은진, 지난 4월 교통사고로 말과편된 차량의 사인을 올려 팬들의 가슴을 울려내리게 한 배우 장근석 등 연예인들의 트윗은 그야말로 바람같이 날아간다.

연예인들의 SNS가 있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소속사의 고민도 깊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SNS 만큼 효과적인 홍보 수단도 없기 때문. 소속사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 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는 매력적이다.

한 연예기획사 홍보 담당자는 "SNS는 해외 홍보나 팬들에게 파급력이 커서 효율적인 홍보수단"이라면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SNS가 사적 네트워크 성격을 뛰어넘어서 언론과 같은 공적 기능을 맡게 된 점을 꼽았다. 때로는 언론을 능가하는 파급력과 파괴력을 지니게 됐다.

연예인들의 SNS가 있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소속사의 고민도 깊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SNS 만큼 효과적인 홍보 수단도 없기 때문. 소속사 입장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 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는 매력적이다.

한 연예기획사 홍보 담당자는 "SNS는 해외 홍보나 팬들에게 파급력이 커서 효율적인 홍보수단"이라면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7일(음 7월 10일 庚申)

36년생 미련을 버리고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을 것이다. 48년생 감정에 치우친 논리는 공허하다. 60년생 적극성을 띠는 것이 좋다. 72년생 장애물을 제거하여 답답함을 해소하라. 84년생 재시도할 운세다. 행운의 숫자 : 49, 06

42년생 빈틈없는 사전 준비야말로 원만한 진행을 이끈다. 54년생 맹시를 내고 나들이를 하는 운수롭다. 66년생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하게 정리하라. 78년생 허세를 부리는 사람에게 속아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4, 31

37년생 진실 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49년생 빈틈이 보인다. 61년생 강자의 황포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다. 73년생 과도기의 어려움이 커보인다. 85년생 겸손한다면 일거양득 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66, 13

43년생 훨씬 편리하게 될 것이다. 55년생 오래 지탱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라. 67년생 누구와도 소원함이 없이 친근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79년생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가는 것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39, 67

38년생 가능한 만큼 감당하지 않으면 부담으로 작용했다. 50년생 뒷사람이라고 해서 사과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62년생 모두 준비해 두어야겠다. 74년생 기다려왔던 절호의 찬스가 도래하였다. 행운의 숫자 : 58, 33

44년생 장식용인 의미가 없으니 처분하는 것이 좋다. 56년생 귀한 한데 숨어 있도다. 68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일을 막는 이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매력이 넘쳐흐르는 이 앞에서 넋을 잃었구나. 행운의 숫자 : 47, 70

39년생 성과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51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3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로 중압감을 느낄 수 있다. 75년생 과정에 주목한다면 가다가 잡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41

45년생 하나하나 개별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제일 낫겠다. 69년생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81년생 품위와 단정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0, 75

40년생 주도하는 이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존중하라. 52년생 앞으로도 유사한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질 것이다. 64년생 복잡한 조건과 환경이 섞여 있는 형상이다. 76년생 활동만 잘한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04

46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58년생 독점보다는 상생의 길을 도모하여야 한다. 70년생 전혀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휴식을 가지는 것도 좋다. 82년생 필요하다면 간청을 해서라도 뜻을 이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2, 79

41년생 연연증 증며들어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와있다. 53년생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65년생 효율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임박하고 있느니라. 77년생 중간에 막힐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23, 54

47년생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자세가 습관화되어야 한다. 59년생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71년생 상통수단에 대한 일체 점검과 대비가 절실하다. 83년생 교통사고에 실망할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90, 2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Section for 'Do you have any pets in your place?' featuring a Korean text, a Chinese text '開卷有益(개권유익)', and a Japanese text '歡聲を上げながら、応援しました.' with English translations and a reference to a book '승수언담록(繩水燕談錄)'.

Section for '니하오 풍구위' (Hello, Wind) featuring a Chinese text '毛病 máobìng' and an English text '털에 병이 생기면 문제이지요' with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diom.

Section for '오하오우 니혼고' (Hello, Japan) featuring a Japanese text '歡聲を上げながら、応援しました.' and an English text '합성을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with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diom.